

유가상승 정유사 탓인가



제유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유가는 원화 약세로 계속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 약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우리의 처지가 한 없이 안타깝다.

요즘 자동차가 애플단지로 전락했다고 아우성이다. 엇그제 리터당 800원선이던 휘발유 값이 1,200원선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옴직도하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부쩍 주변에서 고유가를 석유업계 탓으로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정유업계로서는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 동안의 정부 가격 통제로 「기름 값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비자의 고정관념을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지금의 외환위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정유업계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석유제품의 원가구성은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원재료비, 즉 원유 관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90%에 이르며, 나머지 10%도 그 절반은 정부에 납부하는 관세 및 부과금이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제조, 관리, 유통비용등 정유사의 경영비용이 된다.

그나마 감가상각비등 경직성 비용을 제외하면 정유사가 통제할 수 있는 몫은 원가의 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대강의 원가구성을 보면 전체의 90%가 달러로 지급되는 비용이며, 따라서 외환시세가 석유제품 가격 결정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이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자 국가의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가격은 이러한 변동요인을 전부 반영하지도 못하고, 제때에 조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유가로 인해 석유제품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수요처의 경영악화로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원유공급선의 대금 결제조건은 날이 갈수록 불리해 지고 있다.

비록 비용 절감노력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정유업계는 어느 업계 못지 않게 그야말로 뼈를 쥐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업계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땅히 완수해야 할 석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다.

최근의 석유제품가격 인상은 환율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소비자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석유협회 홍보팀 >